

인공판막치환술후 발생한 급성신부전에 대한 임상적 고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신현중. 최대용. 최세영. 박창권. 이광숙. 유영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0년 7월부터 1993년 6월까지 13년간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받은 737례(술전 만성신부전증 환자 4례 제외)중 급성신부전증을 보인 20례의 환자를 대상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급성신부전의 발생빈도는 2.7%였으며 대상환자들의 평균연령은 45.2세(16세-70세)였다. 6례에서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북막투석이 4례, 혈액여과 1례, 북막투석에다 혈액여과및 혈액투석을 함께 시행한 경우가 1례였다. 신부전의 원인으로 18례에서 저심박출증, 2례에서 다량수혈로 사료되었다. 술후 소변량에 따라 나누면 핏노균이 14례, 비핏노균이 6례였다. 7례의 환자가 사망하여 병원사망율은 35%였으며 이중 핏노균이 6례(42.9%), 비핏노균이 1례(16.7%)였다. 그리고 신대체요법을 시행한 6례중 4례가 사망(66.7%)하였다. 생존환자에서 평균 핏노의 기간은 11.9일이었고, 신기능을 회복한 기간은 평균 21.5일이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술후 신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저심박출증의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아울러 신부전의 발생시 보존적요법 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대체요법에 대한 보다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진다.